



재일대한기독교회
선교 100~110주년
표어
감사의 백년
소망의 백년
(데살로니가전서 5:18)

1963년9월20일 第3種郵便物許可 (毎月一日発行)
2016년8월1일 (월) 제 754호
발행처 복음신문사 (1부 100원)
〒169-0051 東京都新宿区西早稲田2-3-18
☎03-3202-5398 info@kccj.jp
발행인/ 김성제 · 편집인/ 김병호
인쇄소 靑丘文化社



둘이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미가 4:3>



정연원 목사 (선교위원장/오사카교회)

“하나님께서 민족 사이의 분쟁을 판가름해 주시고 강대국 사이의 시비를 가려주시리라. 그리 되면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26년 전, 1990년 7월 자동차로 成田공항으로 향하는 나는 무척 흥분해 있었다. 내 일생 처음으로 북조선에서 오는 사람들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북조선에서 오는 조선기독교도련맹 일행을 모시기 위해 공항 배웅을 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고기준목사(조선기독교도련맹 서기장)와 4명의 방문단을 맞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분들은 <제1회 조국의 평화통일과 선교에 관한 기독교 동경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대표단이었습니다. 그리고 7월8일(주일), 대표 중 한분이신 조길남목사(조선기독교도련맹 중앙위원)께서 당시 제가 섬겼던 동경중앙교회에서 주일예배를 함께 드리며 설교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저는 교우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머리에 빨이 나 있고, 얼굴이 빨강색인 줄 알았는데 만나고 보니 빨강색도 아니고 빨도 없는 우리와 똑같은 얼굴입니다. 북에서 오신 목사님을 환영합니다!” 하고 소개했습니다.

7월 10일(화) 남북 지도자들과 해외교회 대표단들이 동경 YMCA 9층 강당에서 아리랑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대표들이 강당으로 입장을 하면서 제일 먼저 손을 씻는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동안 겨레와 민족을 사랑하지 못했던 잘못된 뉘우침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쓴물을 마셨습니다.

창세기 33장에서,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가로챈 야곱이 형의 분노를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해 있다가 20년 만에 그는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마음 속에는 아직도 형 에서의 분노에 두려움을 느낀 야곱은 자신의 지혜를 다 모아 형을 시험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형 에서는 무조건적인 받아들임을 통하여 두 쌍둥이 형제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용서와 화해의 장이 이루어질 때 야곱은 고백합니다. “형님이 저를 이렇듯이 사랑으로 맞아주시니 형님 얼굴을 쳐다보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뵈는 것 같습니다.” 남과 북의 지도자들이 함께 하는 장소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의 얼굴을 함께 대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남과 북의 지도자들과 세계에서 모인 대표들의 마음에는 누구의 잘못을 시비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진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몇 차례 수정을 거듭한 공동기도문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는 순간 흘러 내리는 눈물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북에서, 백두산에서 잘라 온 나무 한쪽과 남에서, 한라산에서 잘라 온 나무 한쪽을 이어 십자가를 묶었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

엘과 유다의 이름을 쓴 막대기를 각각 가져다가 둘을 하나로 합쳐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단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서로 연합하고 통일된 하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 둘이 하나됨을 확인하는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북에서 가져 온 포도주와 남에서 가져 온 포도주를 함께 부어 한 그릇에 담아 당시 총회장 김형식목사, 북에선 김운봉목사(조선기독교도련맹 평양시 부위원장)의 공동 집례로 성찬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 한 형제자매인 것을 재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재일대한기독교회의 주최로 이렇게 시작된 <조국의 평화통일과 선교에 관한 기독교 동경회의>는 8회 실시하였습니다. 당시 2000년 이후 남북은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는 시간이었고 남북은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등 폭넓은 교류를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 총회가 이런 모임을 해외에서 할 필요성을 가지지 못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조국의 현실과 미래를 생각하면서 또다시 찾아온 긴장 상태와 반목과 불신, 정치 지도자들의 잘못된 판단과 평화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열기가 식어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북은 UN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계속하고 있으며, 남과 북의 대화의 창은 열기가 쉽지 않은 상태로 계속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조국의 분단이 70년이 지나고 71년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의 소통은 불통이 되어버린 오늘, 민족의 해방의 기쁨을 기억하며 누릴 이 광복의 환희가 긴 한숨이 되어 나오는 지금 우리들은 특히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 해외동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시 그날의 가슴 뛰는 고동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그 흥분을 다시 느끼고 싶습니다. 남과 북, 북과 남에서 세계 이곳저곳에서 달려온 교회 지도자들과 우리 재일동포들이 하나 되어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통일을 소원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통일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

선지자 미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십니다. 미가4:3. “하나님께서 민족 사이의 분쟁을 판가름해 주시고 강대국 사이의 시비를 가려주시리라. 그리 되면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 사이의 분쟁을 판가름해주십시오. 주변 강대국 사이의 시비를 가려 주십시오. 막강한 살상 무기를 버리고 평화의 도구를 만들어 함께 사는 평화로운 한반도와 이 세계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입니다.

평화통일주일을 함께하는 전국교회와 교우들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며 나아가십시오.

2016년 재일대한기독교회 · 일본기독교단 평화 메시지

재일대한기독교회 총회장 김 성 제
일본기독교단 총회의장 이시바시 히데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25:40)

우리 재일대한기독교회와 일본기독교단은 아시아·태평양전쟁의 죄책을 하나님 앞에서 상기하고 인근 여러 나라를 침략과 식민지 정책으로 큰 고통을 가했던 것을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반성하면서 평화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와 평화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무력·전쟁의 길로 가는 것에 대하여서 <아니다>라는 분명하게 하는 평화의 길과 평화의 복지에 예외가 없는, 모든 사람이 함께 나누는 공생사회 구축을 모색해 갑니다. 약자를 잘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소수자의 외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안된다고 확신합니다.

헤이트 스피치가 없는 평화와 공생의 사회를 위해

일본에서는 조선학교에 다니는 여학생들의 교복을 찢는 등 재일 코리안을 비롯한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차별·배외주의적 주장을 표방하는 단체에 의해 인권적 중요와 민족 차별을 선동하는 헤이트스피치를 규제하는 법률이 금년 5월에 성립되었지만 구체적인 금지항목과 처벌에 대한 항목도 없고, 규제대상은 「본국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행」이라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누, 오키나와, 피차별 부락 등, 소수자를 향한 차별적 언동은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헤이트 현상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현대 일본 정치가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전쟁포기 법률을 흔들려고 하는 극우적 세력의 움직임과도 관계가 없지 않습니다. 재일 대한기독교회는 2015년 11월에 일본기독교단과 일본국내, 세계교회와 함께 제3회 「마이너리티 문제와 선교」라는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일본에서의 인종차별 철폐를 위해 일본과 세계 기독교인이 함께 기도하며 협력할 것을 확인하고 마이너리티 센터의 설립(2017년 4월 예정)을 결의했습니다. 재일대한기독교회와 일본기독교단은 헤이트 속에 잠재되어 있는 적대심을 환대와 화해의 복음신앙에 견고히 서서 공생과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고, 현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에게 맡겨진 복음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헤이트스피치에 대처하고 이땅의 평화공생사회를 실현해 나가자고 결의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없는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동일본대지진이 있고 5년이 지난 지금도 동경전력 후쿠시마 제 1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로 인한 심각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재해 관련 사망자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10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힘든 피난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피난생활에 약자들은 관심에서 점점 멀어지고 지역간 또는 피난자를 받아들여 지역 주민과의 사이에도 마찰이 있고 같은 피난민 사이에서도 크고 작은 갈등으로 인간의 존엄성마저 상처를

입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마치 원폭사고와 피난자의 존재를 무시나 하는듯 규슈전력은 센다이(川内) 원자력발전소 1호기와 2호기를 재가동 했습니다. 얼마전 있었던 쿠마모토 지진 때에도 원폭사고의 우려로 주민들은 원자력의 일시정지를 요구했지만 그 소리마저 들어주지 않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 처럼 가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자력 규제위원회는 40년이 경과된 칸사이전력 타카하마(高浜) 원자력발전소 1, 2호기에 대해서 운전 기간을 최장 20년 사용을 허락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재일대한기독교회와 일본기독교단은 재가동을 반대하는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원자력발전소를 재가동 하는것에 강력히 항의합니다. 이와 함께 일본정부에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정지하고 신속히 폐로(廢炉)해 가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원자력에 의존하지 않는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끝까지 요구할 나날 것입니다.

기지가 없는 평화롭고 비폭력 사회를 위해

재일대한기독교회와 일본기독교단과는 작년 9월에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된 안전보장관련법이 헌법위반이며, 그 법을 폐지하고 입헌주의로 돌아 올 것을 일본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베정권은 쿠마모토지진에 편승하여 오스프레이를 물자 수송에 사용하면서 긴급사태 조항 추가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베정권의 지지모체인 일본회의와 신사본청은 “헌법개정엔 찬동하는 서명”을 신년에 신사 참배하는 사람에게 까지 폭넓게 요구하면서, 각국 수뇌들을 伊勢志摩에 불러들여 회담을 개최하고 각국수뇌를 이세신궁에 ‘방문’ 하게 하는 등 국가신도의 부활과 헌법개정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오키나와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6월 19일에는 미해군에게 살해된 여성을 추도하는 주민대회가 열려 6만5천명의 참가자와 기지없는 오키나와를 꿈꾸는 <주민의 분노와 설움은 한계를 넘었다>라는 비통한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외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재일대한기독교회와 일본기독교단은 정치적 책임이 있는 자들이 헌법을 지키고, 이 세계에 진실과 평화 실현에 기여하는 정치를 하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오키나와의 분노와 설움에 관심을 가지면서 안전보장관련법의 폐지를 위해 계속 기도하면서 소리를 높혀 갈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와 질서를 바탕으로 국제평화를 성실히 회구한다.>(헌법제9조) 무력행사 없는 평화실현을 위해 힘을 다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의 예수그리스도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기도합니다.

2016년 8월

전국여성회 연수회 개최

“주안에서 하나” 주제로 전국에서 105명이 모여

전국교회여성연합회(이하 전국여성회)는 2016년6월20일(월)~6월21일(화)까지 이틀간 선교국과 사회국 주최로 연수회를 가졌다. 「주안에서 하나! ~말씀과 찬양으로 다음세대를 이어가자~」라는 주제로 105명이 참가 하였으며 많은 배움과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다.

개회예배는 이시바시 마리에 전도사의 「주를 찬양하라」 라는 제목의 설교로 은혜가 충만한 시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번 연수회는 주제에 맞추어 2번의 강연이 있었다. 제1강연은 코이노니아 복음교회의 마츠모토(이)목사를 비롯하여 96명의 신도들의 찬양으로 시작이 되었으며, 이어서 동 교회의 다카하시 에츠코 장로의 인사와 간증이 있는 후, 마츠모토 목사가 「일본인에게는 일본인과 같이」 라는 제목의 강연이 있었다. 계속해서 동 교회의 찬양팀의 찬양과 간증, 또한 연수회 참가자와 더불어 찬양하는 형식의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오후 전국여성회가 힘을 쏟으며 매진하고 있는 「나드 향유 옥합」 운동의 경과 보고 및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다. 저녁 식사 후에는, 이번의 새로운 세미나에 대한서의 의견, 차세대로의 신앙 계승을 위한 방법 및 젊은 청소년들이 편하게 교회로 발걸음을 돌리도록 하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해서 그룹별 토의가 있었다.



이들째의 제2강연은 사카이교회 목사로 총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김필순 목사를 통해 「우물가 성서」 라는 성서연구를 가졌다. 테마는 예수그리스도의 계보에 나오는 유다의 며느리 「다말」 에 대해서 배웠다. 코이노니아 복음교회의 마츠모토 목사와 19명의 여성 신도들도 함께 참가하여 다양한 시점,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느낀 점 등을 서로 나눔으로 보다 깊은 성경을 배우는 기회가 되었다.

「우물가 성서」 에서 배우고, 은혜를 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 폐회 예배에 임하였다. 폐회예배도 김필순목사의 「복음에의 응답」 이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었다. 「우물가 성서」 에서 배운 「다말」 과 같이, 인간적인 눈높이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여성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땅끝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 되었다.

(보고 : 서기 송복희)

<서부지방 여성연합회>

제31회 정기대회 개최

서부지방교회 여성연합회의 제31회 정기대회가 4월5일(화), 니시노미야교회에서 30명(대의원14명)이 참석하여 개최되었다.

개회예배는 박영자부회장의 사회로 시작하여 양영우목사(무코가와교회)의 「수로보니게 여인의신앙」 (막7:24-30)제목으로 설교하였다.

오후부터는 회의에 들어가 전화의록 확인 및 결산보고가 있었다. 공식인 부서기로 오오야마케이코씨(가와니시교회)가 선출되었다. 2016년도 예산안 승인, 활동방안 등이 토의되었다.

폐회예배는 최미혜자 회장의 사회로 김승희목사의 “주가 응답하신

다” (삼상1:9-20)란 제목의 설교가 있던 후 축도를 폐회했다.

(보고자 : 유정혜)



<관서지방회>

아슈람 수양기도회 개최

2016년 5월 10~11일, 제 45회 아슈람 기도 수양회가 도시사비와 코리트릿센터에서 관서지방회 전도부 주관으로 열렸다. 약 90명이 참석한 이번 수양회에서는 ‘기도와 영성’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임인식 목사(노량진교회 원로)를 강사로 세 번에 걸친 강의를 들었으며 그 이외에도 간증과 기도의 시간, 분단기도의 시간, 새벽기도회와 야외 묵상 등을 통해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도모했고 은혜충만의 시간을 통해 각자 받은 은혜를 나누었다. 임인식 목사는 주되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사람과의 관계와 교회 생활 속의 화해를 다루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꿇을 수 있는 사람은 인간 앞에서도 무릎꿇지 않으면 안 된다” 는 것이다. 분쟁을 경험하고 다름에 휘말린 한국과 일본의 각 교회를 향한 의미심장한 말이 아닐 수 없다.

관서지방회는 1972년부터 분주한 일상생활과 거리를 두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이 수양회를 매년 열고 있다.

(보고자 : 이원중 목사)



博多教会

윤선박목사 위임식 거행 최정강명예목사 추대식도 동시에

2016년6월26일(주일), 하카타교회에서 윤선박목사 위임식 및 최정강명예목사 추대식이 임시당회장 신치선목사의 사회로 거행되었다.

개회예배는 천봉조목사의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딤후2:1)의 설교가 있던 후, 서남지방회장 주문홍목사의 사식으로 윤선박목사에 대한 위임 서약 및 선포가 있었고, 위임받은 윤선박목사의 사식으로 하카타교회를 설립하고 정년 은퇴한 최정강목사를 명예목사로 추대하는 순서도 거행되었다.

위임받은 윤선박목사는 1982년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출생하여 관서학원대학 신학부, 재일총회신학교, 한국에 유학하여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하였다. 2012년에 목사안수를 받았으며 大阪교회, 京都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겼다.

명예목사로 추대받은 최정강목사는 1942년 일본 후쿠오카에서 출생하여 1982년에 목사안수를 받았다. 大阪교회에서 강도사로, 목사안수를 받은 후에는 熊本교회, 福岡중앙교회의 목회를 거쳐, 2004년부터 博多교회를 개척하여 목회하고 2012년에 정년은퇴를 하였다.



제49회 일본기독교단과 의 선교협력위원회 개최

매년 가지는 일본기독교단(이하UCCJ)과 재일대한기독교회(이하KCCJ)와의 49회 선교협력위원회가 지난 2016년6월 6일(월)~7일(화), 시즈오카현 아타미시 뉴웰시티 유가와라에서 <양교회의 선교과제와 협력—양교회의 교역자 인사문제와 교류—>의 주제로 개최되었다.

개회예배는 부총회장 윤성철장로의 사회로 총회장 김성제목사의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눅5:1-11)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이어서 참가자 소개, 전화 기록의 확인, 양교회 소개 과제 및 활동 보고가 있었다.

저녁식사 후에는 서기 조영철목사의 진행으로 UCCJ세계선교간사 카토마코토목사와 KCCJ의 총간사 김병호목사가 각 교회의 선교사 영입 문제와 교역자 인사에 관한 발제를 하였다.

다음날에는 발제에 대한 토의와 <2016년 평화 메시지> 초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서 양교회의 담당자들이 내용을 조절하여 8월 <교단신보> 및 <복음신문>에 게재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교회 사이 목사 이동에 관한 것은 이러한 회의를 계속해 가면서 왕래할 수 있는 시스템과 규칙을 만들어 갈 필요성을 협의하였다. 현재 KCCJ에서 UCC에 선교사로 파견된 2명의 목사를 제외하고, 1명은 이중교적에 처해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UCCJ에서 나왔다.



폐회예배는 UCCJ총회 부의장 사사키 미치오목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행14:21-28)의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금번 회의에 KCCJ에서는 총회장 김성제목사를 비롯하여 임원 및 선교위원장 정연원목사가 참석하였다.

한일5교단 선교사에 관한 협의회를 개최

선교사를 파견하는 한국의 기독교대한감리회(KMC), 한국기독교장로회(PROK),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PCK)와 선교사를 영입하고 있는 일본기독교단(UCCJ), 재일대한기독교회(PCK) 등, 5교단이 선교사에 관한 협의회가 지난 2016년 6월 7일~8일에 재일본한국YMCA 회의실과 일본기독교단 회의실에서 가졌다.

한국 3교단에서는 4명의 실무자, 일본에서는 2교단에서 총회 임원 및 실무자 등 20여 명이 참석하여 가진 협의회는 UCCJ에서는 박미애목사(PCK선교사, 野幌교회)가 발제를 맡아 아세아학원, 낙농대학, 그리고 닛포로교회에서의 선교활동이 소개되었고, KCCJ에서는 김종현목사(PROK선교사, 浪速교회)가 발제를 통하여 일본의 홈레스 선교와 목회활동을 소개하였다.

둘째 날의 협의회는 UCCJ와 KCCJ의 선교사 현황과 과제에 대하여 보고하고 토의에 들어갔다. 한국의 3교단에서 UCCJ에 파견받아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는 11명으로, KMC6명, PCK3명, PROK2명이며, 한국 3교단에서 KCCJ에 파견받아 활동 중인 선교사는 30명이며, PCK16명, KMC12명, PROK가 2명이다.

파견받은 선교사들이 현지 교단(교회)에 선교(목회)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적응훈련 프로그램 개발, 인턴기간을 설정해야 할 필요성 등을 한일 5교단이 공유하고 이러한 협의회를 거듭 가지면서 추진해 가기로 하였다.

차기 협의회는 2017년2월20일~21일에 서울 PROK회의실에서 가지기로 하였다.



교토히가시야마전도소가 교회 승격식 22년만에 큰 기쁨

2016년 7월17일(주일), 교토 히가시야마교회 승격이 관서지방회장 김종현목사에 의해 선포되었다.

교토 히가시야마교회는 1994년9월4일, 故 나중남(羅曾男)목사의 의해, 구 재일조선기독교회 타나카전도소의 재창립으로 설립되었다. 일본그리스도교회 요시다(吉田)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교토대학 학생회관 등의 예배 처소를 옮겨 다녔지만 지난2012년 2층 가옥을 임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나중남목사의 은퇴 후, 이상경목사가 목회하였고(2004년-2007년), 2008년 부터 지금의 이원중목사가 부임하여 2012년에 위임을 받아 섬기고 있다.



승격식은 이원중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배양일장로의 기도, 총간사 김병호목사가 설교, 전성삼목사가 권면, 동지사대학 교수 하라마코토(原誠)목사가 축사를 하는 등, 관서지방회에서 많은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青年会全国協議会●

第67回夏期修養会案内

- ・日時：2016年8月10日(水)～13日(土)
- ・場所：VIPアルパインローズ・ピリッジ(兵庫県篠山市遠方16-3)
- ・参加費：¥30,000(交通費8割負担いたします)
- ・主題：～喜び、痛みを分かち合い共に伝道し合う青年～
- ・講師：李善恵牧師(同志社大学院社会福祉博士)
- ・主なプログラム：礼拝、講演、発題、交流会、分団ワーク、映画観賞、花火大会など。
- ・問い合わせ：<代表>白勝和090-9879-3696、<総務>吳眞雅090-9984-9584
- ・E-mail：faterinsakuracard@gmail.com
yepikopiuyu@yahoo.co.jp

在日コリアン文化の創造と多文化共生社会を目指して、在日本韓国YMCAは皆様と共に歩みます。



東京◆ホテル：東京で一番安く便利な宿泊研修施設。フロントは日・韓・英語に対応、24時間営業。10名様～200名様のお会議及び宿泊研修(50名)も可能。
 ◆スペースYホール：200席の多目的ホール。セミナー・コンサートなどに対応。
 ◆韓国文化教室(チャンク・カヤ gum・舞踊) ◆韓国語講座 ◆各種子どもクラス
 ◆YMCA東京日本語学校(3ヶ月～2年、短期研修)
 関西◆にほんご教室(新規開講・募集中) ◆韓国民俗芸術科(舞踊・チャンク)

| 税込 | 平日 | 休休前日 |
|------|---------|---------|
| シングル | ¥6,500 | ¥6,000 |
| ダブル | ¥10,500 | ¥9,700 |
| トリプル | ¥13,500 | ¥12,500 |

※朝食・コーヒー¥200(宿泊者価格)

在日本韓国YMCA <http://www.ymcajapan.org/ayc/jp/> *会員及び教職者割引有。詳しくは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東京韓国YMCAアジア青少年センター 〒101-0064 東京都千代田区猿樂町2-5-5 ☎03-3233-0611
 関西韓国YMCAアジア青少年センター 〒537-0025 大阪市東成区中道3-14-15 ☎06-6981-0782